



## 박소현의 섹.시.토.크

그 날은 유난히 길이 많이 막혔다. 운전석 옆자리에 태고 있던 J는 마음이 타들어갔다. 진정업 미가 태고 오신 가차가 이미 역에 도착하고도 남았을 시간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조차 없는 양반이라 분명 계표구 옆에 보따리를 쓸어놓고 조그마 앉아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실 것이 뻔했다. 공중전화로 전화라도 한통 해주면 마음이 편하려면 그보다 좋더라도 엊갈릴까싶어 분명 목이 빠지게 출구 쪽만 바라보며 속을 태우고 계실 것이다.

아무리 주말 오후라 해도 20분이면 가고도 남는 길이고 평소보다 삼여분이나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무슨 이유인지 딱 떡 방향으로 차들이 가다서다 중이었다.

J가 옆에서 틀를거리고 있으니 남편도 속이 타들어 가는지 ‘왜 이렇게 막히지?’를 연발했다. 어쨌든 15분 정도 늦긴 했지만 어렵사리 역 근처에 다다랐다.

“저쪽에서 유턴하면 되지?”

“응”

진정업미를 마중나가거나 배웅하는 일은 늘 J가 해 왔던 터라 역 근처 지리는 훤했다. 그런데 막상 유턴을 하려고 1차선으로 달려가니 유턴차선이 지워지고 없다.

“어? 유턴 안 되잖아.”  
“이상하다. 몇 달 전엔 분명히 봤는데… 어떤 하지?”

유턴이 안 되면 막히는 이 길로 몇 백 미터를 더 가야했다. J가 물살을 지으며 남편을 쳐다보는 찰나, 남편이 갑자기 핸들을 확 들인다.

J에게 남편은 늘 정형화된 착한 아저씨의 모습 소리를 질렀을 J였지만 그날은 남편의 신속한 대응에 그저 ‘어, 어’하며 놀랐을 뿐이다.

그 순간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남편이 섹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이 묘하게 J를 자극했다.

J에게 남편은 늘 정형화된 착한 아저씨의 모습

스럽지 않았다. 내 남편에게도 일탈과 불법의 욕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는 충분히 저지를 정도의 욕기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아래서 여자들이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구나 싶었다.

그 묘한 흥분은 쉽게 가지지 않아서, 그날 밤 J는 굽기야 남편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고 말았다.

“갑자기 왜 아래? 장모님 아직 안 주무실지도 몰라.”

“걱정 마. 피곤해서 일찍 주무실거야.”

“나 몰래 야한 비디오라도 봤어?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남편은 꽤 반기는 기색이었다. J는 속으로 ‘야한 비디오보다 더 섹시한 걸 봤지?’하며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오랜만에 정말 만족스런 잠자리를 가졌다.

불법 유턴 이후 애정이 돈독해진 두 사람은 마치 신혼이 다시 찾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깊은 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앙타깝게도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했다. 불법 유턴이 무인카페에 걸려 벌금고지서가 날아왔고, 고지서를 받아드는 순간 J의 머리뚜껑이 확 열렸기 때문이다.

〈연애칼럼니스트〉



차는 순식간에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다. 불법 유턴을 한 것이다. 거의 8차선에 육박하는 큰 도로에서, 그것도 반대편 차선의 신호가 막 들어온 찰나에 순식간에 이뤄진 일이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법 유턴을 자행하고는 악셀을 휙껏 밟아 역사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평소 같으면 미쳤다고

습이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 안에서만 평안한 사람, 평범하게 살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 어떤 일탈도 허용하지 않는, 아니 허용하지 못하는 사람…….

불법 유턴 띠위가 뭐라고 그리 호들갑이나 할지 모르지만 평소 주차위반 짜지 한 장에도 벌금고지서가 날아왔고, 고지서를 받아드는 순간 J의 머리뚜껑이 확 열렸기 때문이다.

〈연애칼럼니스트〉

## 검색결정 키워드

검색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여성의 게시글이 축구계와 인터넷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로부터 낙태를 종종 당하고 자살 충동에 휙싸일 정도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김주연’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물에 대표팀 수비수 황재원(27·포항 스텔러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커졌다.

미스코리아 김주연과 교제하던 중 김씨가 임신을 하게 됐고 황재원이 김씨에게 낙태를 종용했다

## “낙태 종용에 자살충동”… e세상 발칵

는 내용이다.

14일 오후에는 계시들이 제재된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했다. 이를 본 네이버들은 “이 글이 사실이면 선수의 자살에 문제가 있다”며 축구협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허정무 감독은 대표팀 선수로서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황재원을 대표팀에서 제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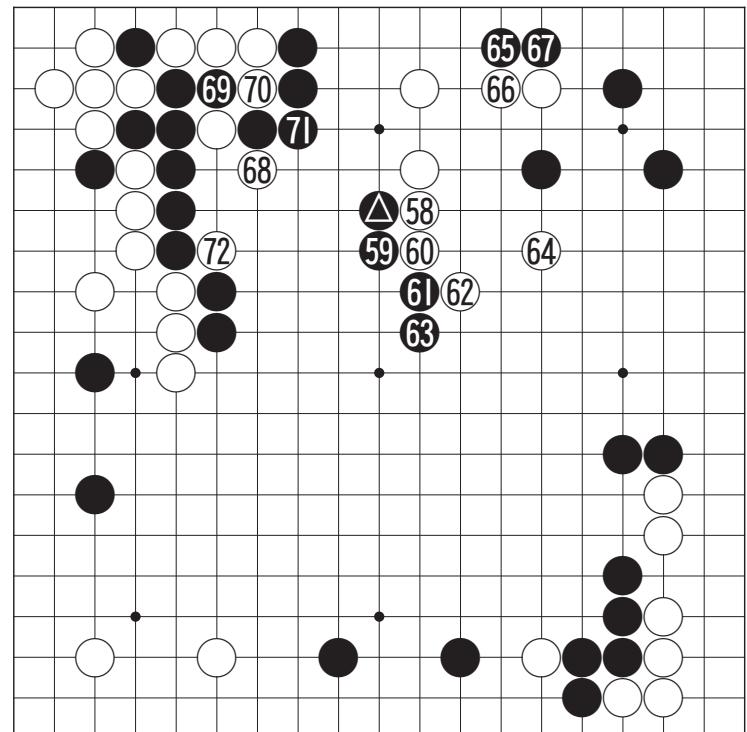
만능엔터테이너 배우 김원희(사진)가 자신의 어릴 적 도벽이 있었다는 충격 고백을 해 화제다.

MBC 드라마네 ‘삼색녀 토크쇼’에서 김원희는 “11살 때 슈퍼나 문방구에서 물건을 종종 슬쩍 했다”고 고백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공형진이 최근 개봉을 앞둔 영화에서 11살의 장애우 역할을 맡아 이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공화문 연기’, ‘옛사랑’, ‘난 아직 모르잖아요’ 등 수많은 명곡을 작곡한 작곡가 이영훈씨가 14일 오전 3시 세상과 이별했다.

또 MBC 나경은アナウンサー의 눈물도 인기 검색어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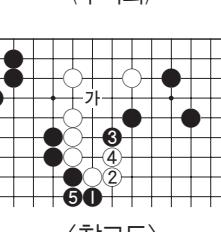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기우회 대항전

## 타이밍 놓친 공격 5보(58~72)

白 김희관 5단 (무석회)



흑▲는 공격이라기보다는 왼쪽 흑 돌에 대한 수비에 가까운 수였다. 그러나 상변에서 실리를 뺏긴 지금은 수비보다는 공격에 치중할 때였으며 이 수로는 당연히 60에 모자를 씌워 백 돌을 험령해야 했다.

김희관 5단 ‘슬슬동풍’이라는 식으로 62까지 기분좋게 빠져나가자 우변건설이라는 흑의 꿈도 어느덧 사라지고 만다.

흑 63도 낙타한 수였다. 이 수로도 ‘참고도’의 흑 1로 이단짓하고 3으로 급소를 들여다 본 다음 5로 꽉 이어

워야 했다. 그런 다음 ‘가’로 들여다 보는 수를 노리는 것이 실전보다 유력했다.

흑 65는 급소이기는 하나 호랑이가 이미 우리를 뛰어나간 다음

이어 뒷북을 치고 있는 경이다.

임상빈 6단 주춤주춤 타이밍을 놓치자 거꾸로 김희관 5단 백 68로 젖혀 노립수를 가동하기 시작한다. 백 72로 끊은 것이 노리던 수로 많은 돌을 투자한 이곳에서 수가 낫다면 흑이 곤란하게 되는데….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바둑 소식

## 얼짱 이슬아 대어 잡다

‘얼짱’ 이슬아 초단이 현역 최고 여성 프로기사인 박지은 9단을 잡았다. 이슬아는 14일 서울시 한국기원서 열린 제5회 전자랜드배 주작왕전 8강전에서 박지은을 상대로 85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박지은은 지난달 국내 여성 첫 9단의 영예에 올랐고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 조혜연 7단마저 예선전에서 꺾은 등 최근 상승세였다.

이슬아도 지난달 중국서 열린 정관장에서 왕관 초단에게 역전승을 거두는 등 선전하고 있다. 이번 대회 제한시간은 각 10분 40초, 초읽기 1회이며 상금은 우승 1천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5일(음 1월 9일 乙酉)



36년생 주변의 도움으로諸事가 풀어간다. 48년생 환호하고 불러가도 정신은 차려다. 60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난다. 72년생 주변에서 협력사가 나타나 큰 도움을 준다. 84년생 과욕하지 않으면 대고는 없다.



37년생 자신의 족으로 쌓아온 명성이 걱정된다. 49년생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일이 생긴다. 61년생 걸보기와는 다르게 쉽지가 않다. 73년생 옛 일을 잊고 환해하라. 85년생 자녀와 직장 사이에 불편사가 발생하나 즉근이 도와준다. 97년생 운운의 숫자 : 22, 32



38년생 이성과 情分으로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다. 50년생 인생의 후반권 다시한번 달려보라. 62년생 아들이 과로우니 대화가 필요하다. 74년생 형제 도움이 절실히 찾아보고 청해보라 결정된다. 96년생 운운의 숫자 : 16, 18



39년생 부부간에 서로로서 살펴보라. 51년생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63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이 적으리라. 75년생 삼사일년 생각하면 좋으리라. 97년생 운운의 숫자 : 14, 43



40년생 서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52년생 직장에서는 언행을 집에서는 조신하라. 64년생 어려운 일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76년생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멋내고 나가보라. 98년생 운운의 숫자 : 22, 28



41년생 마리우가 안 된 일이 자신을 괴롭힌다. 53년생 지나친 육심은 평화를 해친다. 65년생 가까운 사이에 신사는 절대로 시작도 하지마라. 77년생 고운 정 미운 정 생기니 유통으로 시작하라. 99년생 운운의 숫자 : 21, 44



42년생 대기가 예상되니 굳은 마음을 아끼하라. 54년생 자신 재주만드는 글일을 그르친다. 66년생 들판 달고 날 때를 정확하게 지키면 오해는 사라진다. 78년생 친한 친구일수로 말소심 행동 조심을 읽어야 한다. 99년생 운운의 숫자 : 24, 31



43년생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가려서 행하라. 55년생 이들과 대화하고 고민을 들어보라. 67년생 부부사이에 의무를 다하고 나면 예정은 샅샅이다. 79년생 형제 부모가 도우니 모든 일이 평온하다. 91년생 운운의 숫자 : 17, 42



44년생 자신 편에 경사가 생긴다. 56년생 보고 싶은 사람 떠나고 미운 사람 보인다. 68년생 시간은 지루하나 뜻하는 일은 이루어 진다. 80년생 애인이 생길 수도 있으니 준비를 잘하고 있으라. 99년생 운운의 숫자 : 09, 30



45년생 작은 복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57년생 분수를 지켜야內과 복을 줄이는다. 69년생 육심을 버리라 대손이 생길 수다. 81년생 속단은 굽힐수니 여유 있게 생각하면 큰 득이 좋다. 99년생 운운의 숫자 : 11, 34



46년생 바쁜 하루가 된다. 58년생 순리대로 행동하면 결과도 좋으리라. 70년생 여자의 마음이 헛갈리니 중심을 찾으라. 82년생 울고 싶은 일은 생기니 마음껏 울을 오히려 좋은 일은 생기리라. 99년생 운운의 숫자 : 01, 41



47년생 지인과 시비가 발생하나 조심 또 조심하라. 59년생 시비 구설수가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하니 조신하게 처신하라. 71년생 생 자신의 앞날에 변화가 온다. 83년생 오래 동안 생각한 것을 결정해도 좋을 수다.

[www.cafe.daum.net/sajoo114](http://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 굿모닝 잉글리쉬 &lt;1097&gt;

I'm going to take off  
저는 쉬어야겠습니다

A : I'm going to take off.  
B : OK, see you later.

A : Oh, by the way, I need you to take me to the store tomorrow.

B : OK.

A : 저는 쉬어야겠습니다.

B : 알았어요. 다음에 뵙죠.

A : 아, 그런데 말입니다.

내일 쇼핑하러갈 때 저를 데려다 주세요.

B : 그러죠.

\* take off : (쉬기 위해) 일을 그만두다

\* by the way : 그런데

\* 당신 옷을 가져가실래요.

= I need you to pick up your clothes.

\* 자리를 떠 때 TV를 끄실래요.

= I need you to turn the TV off when you leave.

## 오하요우 니혼고 &lt;1097&gt;

寮(りょう)の生活(せいかつ)はどうですか。